

# KCC, 페인트 호조 실리콘 진출 호재

## 실리콘 모노머 진입 성공적 ... 보유 유가증권 가치증가로 목표가 상향

삼성증권은 9월15일 KCC가 전방산업의 호조와 보유 유가증권 가치의 증가 등을 재료로 2006년 들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종전대비 4.3% 높아진 35만6000원을 새 목표가로 제시했다.

송준덕 애널리스트는 “KCC의 주가는 2006년 시장수익률을 23.4% 상회하고 있다”며 “조선 등 전방산업의 호황에 따른 페인트 부문의 호조와 연초 1조3000억원선이었던 보유 투자유가증권 가치가 1조9000억원으로 상승하면서 생긴 순자산 가치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”고 분석했다.

아울러 신규 사업인 실리콘 모노머의 성공적 시장진입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및 자사주 등 비영업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축소 등도 주가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.

삼성증권은 특히 목표가 상향 조정과 관련해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.

송준덕 애널리스트는 “현재 기업가치가 2006-07년 EBITDA(이자·법인세·감가상각 차감전 이익) 평균의 2.9배에 불과한 반면, 자사주를 포함한 보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1조9000억원으로 현 시가총액의 73%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보유 지분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종수 기자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9/15>